

## 5) 반보기(중로상봉)

시집간 딸과 친정식구들이 상봉할 날을 약속하고 양 마을의 중간지점에 있는 동산에서 만나는 것을 반보기 또는 중로상봉이라 한다. 농사를 다 짓고 한가한 시절이나 특히 추석 무렵에 일가친척들이 음식을 장만해와서 정담을 나눈다.

장천동과 풍덕동의 중간지점(현 순천고등학교 앞)의 동산 언덕(오봉산)은 이 지역의 반보기 장소였다. 이때에 일거리가 많은 딸이 친정어머니에게 일감을 넘겨주면 이를 받아 거들어주기도 한다. 가정에 우환이 있어 근친을 못할 경우에도 반보기를 통하여 친정식구들을 만나 보고 이바지를 주고받는다. 이처럼 반보기는 집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상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궁핍한 집안 사정을 알고 혈육의 정을 나누며 상부상조하는 정의를 교환하였다.

농경문화에 기층을 둔 민속은 산업사회를 맞아 그 기능과 효용을 상실하여 하루가 다르게 소멸, 쇠퇴해가고 있다. 오랜 역사와 원시적 신앙 그리고 풍토적 자연성에서 비롯된 민속은 향토적 감흥이 승화된 공감대를 가지고 전승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줄다리기·디딜방아 액막이놀이·돛대세우기 등 이 고장의 여러 민속놀이는 노역과 풍요와 생산, 무병장수를 위하고 역신을 내몰며 방역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화초복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신행위로 집단적인 놀이판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존을 위한 주기적인 리듬으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마을의 융화와 일체감을 조성하여 생기를 북돋아주는 큰 구실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민속은 전승적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원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민속놀이에 거의 민요가 어울려 있어 예술적 원초성을 알아보는 문화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끝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민속의 보존을 위해 고로(古老)들이 더 기력을 잃기 전에 찾아 뵙고 그 유래와 방법을 알아보아야 하겠다. 민속문화를 잃으면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되고 새 문화창조의 능력도 잃게 되는 것이다.